

전 남

전남영어캠프 2천명 성황

원어민 강사와 즐기며 수업... 학생·학부모 큰 호응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전남 영어체험캠프가 전남과대학 등 6개 캠프에서 농어촌 초·중학생 2000여명과 원어민강사 100명을 포함한 운영교사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1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전남 영어체험캠프는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열정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원어민강사 상당수를 캠프에 배치해 운영 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교직 경험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원어민강사를 선발하기 위해 미국 퍼블릭 아이비리그인 애리조나대(University of Arizona)를 포함한 4개 미국 대학에서 우수한 원어민강사를 선발해 배치했다.

원어민강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생 협력교사도 영어회화 실력을 갖춘 교육대 또는 사범대 재학생으로 구성해 운영교사의 질을 한층

높였다.

이 때문에 참가비 부담없이 전액 무료로 운영하지만 수업 프로그램 완성도나 원어민강사를 포함한 운영교사 구성 면에서는 현직 영어교사들로부터 최고 수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어 도내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영어체험캠프는 전남도 교육연수원 연구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학생들이 철저히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도록 프로그램 구성하는데 공을 들였다.

특히 올해 영어체험캠프는 전남도 교육연수원 연구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학생들이 철저히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도록 프로그램 구성하는데 공을 들였다.

원어민과 24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했으며 쇼프·댄스 등 12개 테마 부스 체험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이 즐기면서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올해까지 5년째 캠프에 참가한 운동식 담당 캠프장은 "현장에 와보면 학부모들 사이에 영어체험캠프 인기

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참가자 중 우수 학생을 선발해 겨울 방학동안 미국 어학연수를 보낸다는 점이 굉장한 유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인기비결을 설명했다.

협력교사로 참가한 전남대 3년 서정은씨는 "또래 미국인 강사와 호흡을 맞춰 지역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목포 북교초교 6년 박선민 군은 "그냥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영어가 참 재미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원어민 선생님과 유창하게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영어체험캠프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60여명을 선발해 겨울방학기간에 한 달간 미국 애리조나대 국제언어교육원에서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



곤충전시회는 '호기심 천국' 15일 전남도청 1층 운선도홀에서 열린 곤충전시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신기한 듯 살펴보고 있다.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나비류 곤충 표본 60점과 장수풍뎅이·수정벌·거저리 등 곤충 생물 30점, 누에를 활용한 동충하초 술과 차 등 산업화 제품을 선보였다. <전남도 제공>

원예종묘 품질 국제 수준으로

전남도, 인증제 도입... 딸기·장미 등 수출 확대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국제 수준의 원예종묘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내 원예종묘의 품질인증 체계를 구축한다.

전남농기원은 이를 위해 17일 딸기 우량묘 생산관 관련된 시·군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를 맺고 품질인증제 도입 배경 및 운영계획에 따른 기관별 협조사항 등을 논의한다.

원예종묘의 품질과 등급 등 건전성 보증(plant passport)을 위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전남농기원이 전국에

서 처음이다.

전남농기원은 딸기·장미·국화·과수·고구마 등 영양 번식체 작물의 종묘 품질을 국제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육묘 전업능가를 육성해 원예종묘를 수출 성장동력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원예종묘 품질인증제가 도입되면 2015년 이후에는 딸기 등 관련

산업에서 500억원의 소득창출과 500명의 전문인력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러시아·중국 등으로 수출이 가능한 국내 육묘종묘의 우량묘 생산 수출로 연간 50억원의 외화벌이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민수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전남이 네덜란드처럼 원예종묘 품질인증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동북아 권역 종묘산업 주도권을 쥌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서 "전국 육묘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문 원예종묘 생산 경영체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수자원공, 초등생 영어캠프 인기

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는 15일까지 9박 10일간 장흥군 남도국제교육원에서 '2012년 초등학생 영어캠프 및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5년째 맞는 'k-water 영어캠프'는 전남지역 12개 학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캠프는 영어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영어 집중교육과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영어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어민 강사가 초빙돼 현장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영어를 비롯해, 상황극, 필드백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된 경진대회에서는 장

흥 부산초교 6년 이도희(영어스피치), 보성 북내초교 5년 이광영(골든벨), 화순 사평초교 임재규(상황극) 학생이 부문별 최고상을 수상했다.

상위 입상자 25명에게는 11월에 개최하는 'k-water 전국영어경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광양 다담초교 6년 이예진 양은 "영어캠프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재미있었고 외국인 선생님께 직접 배울 수 있어서 자신감이 늘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완도 낙도주민들 육지 나들이 편해졌다

목포항만청 항로 조정

완도 서부 낙도 주민들의 육지나들이가 항로 조정으로 한층 편해졌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완도군 노화도 이북항에서 출발해 횡간도·흑일도·백일도를 거쳐 완도 군외면 원동항으로 입항하는 보조항로의 종점을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원동항에서 해남군 북일면 남성항으로 바꾼 이후 섬 주민의 교통 불편이 사라졌다고 항만청

은 설명했다. 이 항로에는 지난 2000년부터 10t 섬사량호(정원 50명·차량 9대)가 운항하고 있다.

이 여객선은 원동항의 수심이 낮아 정박시간이 50분 정도로 짧아 한 달에 6~10일은 배가 다닐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은행, 병원 등의 일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며 육지에서 하룻밤을 자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항로 조정 이후 정박 시간이 50분에서 2시간30분으로 늘어 이런 불편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

목포항만청과 섬 주민들이 남성항

주민들과 끈질긴 협의로 항로 조정을 이끌어 낸 결과다.

박민규(백일도 거주)씨는 "종점 변경 후 섬사량호가 매일 운항하고 정박 시간이 늘어 육지 일을 충분히 볼 수 있어 정말 좋다"고 기뻐했다.

변경 이후 수송실적도 좋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객은 하루 평균 45명도 3배 가까이 늘었다. 차량은 1주일에 1~2대 실었지만, 지금은 하루에 4대쯤이다. 이 항로를 이용하는 섬 주민은 300여명이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인기 만점' 완도수목원 숲해설

올 713차례 2만2천여명에 해설서비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 750여종이 집단적으로 자생하는 원의 차별화된 숲 해설이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완도수목원은 자체적으로 양성한 수목원 숲 해설가들이 올해들어 713차례에 걸쳐 모두 2만2천400여명에게 숲 해설 서비스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매년 4만여명 가량이 숲 해설 서비스를 받고 있다.

완도수목원은 붉은가시나무, 황칠나무, 참식나무 등 희귀 난대수종

2050ha의 넓은 면적과 30여개의 전문소원(小園)에 3800여종의 식물종을 전시, 관리하고 있다.

산림박물관과 아열대온실 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와 재미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숲 해설가의 안내가 필수적이다.

완도수목원은 지난 200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역주민 109



완도수목원의 난대림 숲 해설가 양성 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수종 생물의 생태를 관찰하고 있다.

명 숲 해설가로 양성했다.

숲 해설은 하루 4차례 관광객 20명씩을 한 그룹으로 짜 실시되며 최대 2시간이 소요된다.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예약제가

원칙이다. 예약을 못한 경우에는 당일 방문객 여건 등을 고려해 숲해설 서비스를 해준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대한방과후교육협회 발기인 대회 및 사업설명회

안녕하십니까!
사)대한방과후교육협회에서 지역 교육을 이끄시는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방과후 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 교육의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한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할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시어 고견 주시기를 기 바랍니다. 향후 전국 지방망을 통해 조직적인 활동으로 내실 있고 체계적인 방과후 교육을 선도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협회 회원, 본과장, 지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현직 교육계 저명인사 회장 및 고문, 이사, 자문위원참여)

일 정

- 일 시 : 2012년 8월 16일(목) 14:00~16:00 (광주·전남 동시 실시)
- 장 소 : 광주교육대학교 대강당
- 문 의 : (사)대한방과후교육협회 ☎ 062) 268-0978, 011-434-4837

비 전	회원 및 지부 모집대상
1. 방과후학교 교사인증 자격증발급 2. 방과후교사 양성과정 3. 일자리 창출(고학력경력단절여성) 4. 사회적 기업 지원 5. 평생교육연계지원 6. 법인설립지원	1. 교육계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 2. 교육에 관심이 깊으신 분 3. 학원운영 경험이나, 현재 학원운영중 이신 원장님 4.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하실분
회원가입 후 진로	사업 영역
초, 중, 고 방과후 교사, 창업지원, 문화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노인대학, 각 대학 평생교육원, 1:1 홀스쿨, 지역아동센터강사,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방과후강사 등으로 취업	수련활동(직접수련원, 정남진리조트), 체험학습활동(공예체험, 수영등), 수학여행, 학예발표회, 축제(음향, 조명, 무대중선장식, 레크리에이션강사, 비디오회영등)

사단법인 대한방과후교육협회

SINCE 1988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